2022년 10월 23일
구역말씀나눔(22-21)

주일예배 온라인 구역모임

- 본문 : 에베소서 1장 19~22절
- 제목 :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인생을 살다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인간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히어로'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것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는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들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미묘한 편안함에 적응되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되어서 언제든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위태로운 신앙의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만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1.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 "신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마음의 눈이 확 뜨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2. 바울사도가 표현하는 "그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행하신 구체적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엡1:20~22)

3.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을 때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당신은 부활의 능력을 미래의 소망으로만 갖고 있습니까? 현재의 능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엡1:20)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 안에 당신은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엡1:21 ; 6:12)

· 삶의 열매를 거두며

5. 성찬식은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살고 있을 때, 이 시대 흐름속에 있는 Floating Christian(붕 떠 있는 크리스천)이나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과 같이 영적이라고 하지만 종교적이지 않는 이들을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이미 주셨음을 확신할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은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